



계란 유통 결코 낙관적만은 아니다

- 사육수수 감축운동 참여해야 -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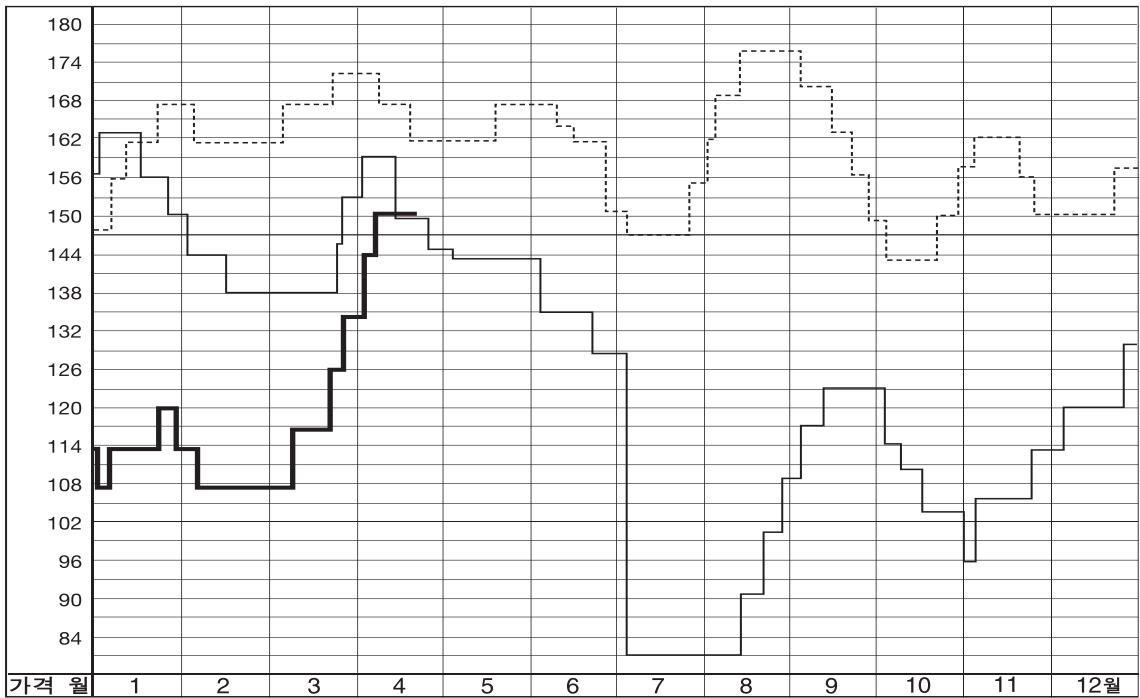
난가는 지난 3월 12일 이후 5차례 인상되면서 산지난가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할인 마트의 할인행사와 부활절, 대형급식업체, 식료품 물가인상에 따른 대체소비, 산지 계란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수요증가에 따라 산지 유통이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재고 물량을 모두 소진시켰다. 구매수요가 생산량을 초과하면서 산지에서도 계란을 구매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일부 중도 매상들은 계란을 구매할수록 손실이 누적되어 구매와 납품으로 인한 이중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2/4분기 계란생산에 주로 영향을 미칠 지난해 4/4분기 실용계병아리 분양마리수는 10,353천수로 전년 동기간 대비 6.3% 감소하였지만 하였으며, 매월 300만수가 넘는 병아리가 분양되면서 계란 생산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자료분석

지난 3월 산란중계 입식마리수는 18,000수로 전년 동월대비 69.8% 증가하였으며, 3월까지의 누계입식 마리수는 155,880로 전년 동기간대비 5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의 산란병아리 분양 마리수는 6,591천수로 전년 동기간대비 32.3% 감소하였다. 2월 육추사료 생산량은 25,458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3.9% 감소하였다. 지난 1월 한달간 산란계대형부화장에서 장기적인 난가하락에 따른 종란 입식을 자제하는 강경책에 따라 금년 사료 생산실적과 병아리 분양마리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단기적인 처방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2월 산란사료 생산량은 155,396톤으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하였지만 축산관측 자료에 따르면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계군의 숫자는 3월 4,915만수, 5월 5,241만수, 6월 5,261만수로 전년 같은달보다 각각 4.8%, 11.8%, 11.8%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월 산란노계 도태마리수는 3,061천수로 전년동월(3,496천수)대비 12.4% 감소, 전월(3,176천수)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산지 난가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은 현재 난가를 계속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방에서는 다소 여유있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다시 계란 소비가 활기를 띠면서 계란은 생산 즉시 바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란 소비 증가요인과 농장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추가적인 난가인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많고, 신계군 비중이 높아 계란 생산성이 좋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계속적인 난가 인상 뒤에는 추후 갑작스런 하락세와 할인폭을 만드는 만큼 안정된 계란유통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 채란업계의 자국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1-- 2012- 2013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263	27.0	181.9	1,075	1,079
2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500	633	25.6	155.4	1,075	1,088
3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1,066	1,145
4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5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6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8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9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0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11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계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